

근대 공공청사 실내공간의 표현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racteristic of the Modern Government Office

이근혜* / Lee, Keun-Hye

오인욱** / Oh, In-Wook

Abstract

Modern architecture does a role in terms of connecting traditional and current architecture. In the same time, Which is important part of Korean architecture history because of introduction of western architecture. Accordingly, At this meaninglessly going out and leaving of modern architec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ystematic researching of the modern Government Office interior.

I progressed this study to research into the period context at construction of the modern Government Office and tendency of architecture and interior at that time. And then understand interior space organization of it. The early modern Government Office adopted Neo-Baroque style from tendency of that time. Also, showed composite order which is mixed in the Greek temple, the Renaissance and the classic style representing the power. But, after late 1920 It adopted Modern Style. This characteristic is different from current composite order, which is comprehended by our. In order to understand aesthetic value of current straight interior space, It have to be interacted the present and past. But It's averted because it was made in the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Therefore, We should explore history of interior design that is endowed with sociality and historicity between modern and future interior space as well as current.

키워드 : 근대 실내건축, 근대공공청사, 실내공간표현, 실내디자인 사

Keywords : Modern Interior Architecture, Modern Government Office, Interior Expression, History of Interior design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공공 청사란 사회적·통속적으로 국가기관을 의미하는 국가의 관서를 뜻하는 말로써 근대 공공청사라 함은 1876년 개항 이후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 근대화 되어지는 과정에서 생겨난 건축적 산물 중 일본이 본격적으로 일제 통치를 하기위해 만들어진 청사 건물을 뜻한다. 일제 강점기에 유입된 근대적 건축물들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나라에 건립된 주요 건물인 공공청사를 고찰하여 변천과정과 공간구성의 표현성을 파악하는 일은 한국 실내디자인사의 여명기를 볼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 강점기에 건립된 공공청사 건물의 실내디자인사를 정리하는데 있어 근간이 될 수 있는 공공청사 실내공간의 체계적 자료 정리와 실내디자인의 근대사

적 의미를 정리하는데 기초적 의의를 두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일제가 본격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지어진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공공청사 건물인 경성부청, 경성 제3재판소등 5곳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관련 문헌과 도면, 사진 그림 등 특히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의 자료를 중심으로 실내 공간 구성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공공청사 건물들이 건립되기 시작한 1920년대의 시대적 배경과 동시대의 서구의 건축 및 실내디자인 표현 경향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각각의 관청 건축물의 실내 공간 구성과 실내디자인 표현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정회원, 강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석사과정

** 명예회장, 강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2. 근대 공공청사 의 태동과 시대적 배경

2.1. 공공청사 건물의 태동

청사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행정사무를 보기위해 사용하는 시설의 총칭¹⁾으로 서양에서는 청사를 시티홀, 타운홀 이라고 한다. 도시의 중심에 있어서 시민의 생활에 밀착된 글자 그대로 '거리의 큰방·집회장'으로 되어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청사가 건설되었는데, '사무 공간+집회장'이라는 공간구성을 원칙으로 하여 지어졌다. 공공청사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가 발달하면서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장소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2세기 봉건제에 대항하는 강력한 자치정부의 출현으로부터 근대적 의미의 관청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²⁾ 또한, 현재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자본이 축적되고 행정의 규모가 성장하기 시작한 16세기 르네상스시대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 독립청사로서 관청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우리나라의 관청개념의 건물은 판야³⁾건축이었으나 이는 왕권을 바탕으로 하는 통치기관이었고, 지방의 모든 관아 건물들은 중앙정부의 지원기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근대적인 우리나라의 관청 건물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위해 세워진 조선총독부 청사와 각 지역의 도청사, 부청사 및 군청사 등이 세워지고 경찰서와 법원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 일제 강점기를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2.2. 시대적 배경

조선총독부 청사가 건립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공공청사건물들이 들어서게 된다. 조선총독부 청사가 착공된 1916년경은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등의 양식이 유행하고 있었지만 준공될 즈음인 1920년대에는 이미 이런 고전주의 양식이 퇴보하고 있었고, 새로운 국제건축양식이 당시 젊은이들에게 강하게 인식될 때였다. 이시기의 관청 건물로는 조선총독부 청사(1926)를 비롯해 경성부청, 경성 3재판소, 각 지역의 부청 및 도청 등이 있다. 이처럼 이 시기에 반식민지 반봉건적 사회의 새로운 관청 건축물들이 출현하고 있는 시기였다.

2.3. 근대 서구 건축 및 실내디자인의 표현 경향

일제강점기 시기 서구에서도 역시 여러 나라에 식민통치로

세력을 키우고 있을 시기였다. 이에 서구제국의 건축은 본질적으로 권력의 산물로서 권력 국가 또는 권력자가 자신의 힘을 뽐내기 위해 스케일 큰 건축물을 만들어 내는 등의 식민주의 양식인 신고전주의와 빅토리아 양식이 유행하고 있었다. 이는 실내디자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모더니즘이 등장하게 된다. Art & Crafts 운동을 시작했던 W.Morris는 '예술은 이미 그 뿌리를 상실하였다. 일상의 생활로부터 격리된 예술가들은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해하거나 감동을 받은채하는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술은 어떤 특수 계급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류의 필수품이다'⁴⁾라고 말하면서 대중화와 기능을 이야기 했다. 또한, 지나친 장식으로 생활환경에 대한 혐오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근대 실내공간의 표현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근대 실내공간의 표현성

	특징	내용
고전주의	과다한 장식	부를 과시하기 위해 실용적이지 못하고 과장한 장식을 위주로 실내를 채움
	공간의 폐쇄성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가구를 사들이고 모든 공간을 가구로 채움
절충주의	장식의 배제	권력과 위엄을 표현하기위한 장식이 사용되지만 다소 절제된 형태의 장식.
	평면의 개방	전체적인 공간의 형태는 폐쇄성을 갖고 있으나 평면 안에서는 개방성을 갖고 있다.
모더니즘	실용적인 공간	지나친 가구 사용을 배제하고 필요한 가구를 적절히 배치. 간결화, 실용화를 추구
	공간의 개방성	평면의 구성에 있어서도 칸막이벽의 배제 등으로 인한 개방성을 추구하고 전체적으로도 대칭의 형태가 사라짐.

3. 근대 공공청사의 실내 공간 사례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을 통치하게 된 일본은 조선총독부 관하에 의하여 식민지 통치에 편리하게 행정과 법 체제를 재조직하고 비장의 말단까지 일본인을 관사로 임용하여 행정 강화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1926년 조선총독부 청사가 완공되고 난 후 건립된 경성부청, 경성 제3재판소등의 완공으로 식민통치를 위한 주요 관청은 건립이 되고, 그 이후에 지방의 각 도청, 부청, 경찰서 등이 지어 지게 된다.

3.1.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의 설계는 1912년 독일인 건축가 게 오르그 데 라란데⁵⁾의 계획을 바탕으로 하였다. 설계 계획안은 1912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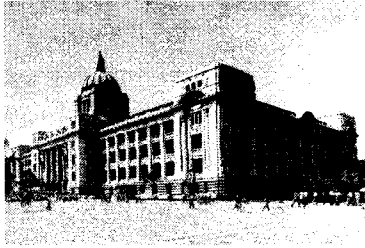
1)장순익, 건축학용어사전, 도서출판세지

2)박현우, 지방자치시대의 공공청사에 관한연구, 중앙대 석론, 2006, p.14

3)관아는 관의 일을 담당하는 고, 즉 정부 또는 행정부의 건물이라는 뜻이다. 또한, 중앙 행정부의 기관 뿐 아니라 지방의 동, 촌, 부, 군에 있는 지방관서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관아는 규모와 성격이 지방과 다르며, 궁궐의 내외에 대규모의 국가행정을 맡아오는 건물들을 말한다. 서울건축사, 서울특별시, 1999, p.324

4)Nikolaus Pevsner, The Sources of Modern Architecture and Design, N.Y, Oxford Univ. Press, 1979, p.9

5)프러시아계 독일인으로 제국 건축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건축가가 되었으며, 베를린 공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베를린에서 건축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일본은 한창 서양 건축가들을 대량으로 불러 들였다. 독일 또한 식민제국을 거느리기 시작하던 때였다. 독일의 많은 건축가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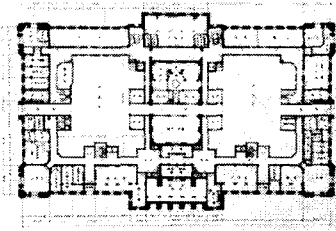
<그림 1> 조선총독부 청사 외관

착수 되었고, 1914년 전 반적인 계획은 끝났다.

엄격한 좌우 대칭을 이루어 권위적이고 엄격성이 강한 건물로서 당시 서구 열강이 식민지에 앞다투어 지은 전형적인 식

민지풍의 제국주의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1) 공간구성



<그림 2> 1층 평면도

조선총독부 건물의 기본적인 평면 계획은 대칭형의 규칙적으로 일관성 있고 질서 있게 구성되어 있다. 2개의 중정이 배치된 장방형의 평면으로 계획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의

실들을 외곽 둘레에 배치를 하였다. 동선 계획은 2개의 중정을 둘러싼 복도가 중앙대 홀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모든 동선은 개구부의 위치와 공간내의 활동 영역, 통로와의 유기적인 결합을 하면서 중정 둘레에 위치한 여러 기능의 각 실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출입구의 위치들은 건물의 정면과 측면 부분 중앙에 배치하여 개구부를 중심으로 대칭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2) 실내 디자인



<그림 3> 중앙대홀

1) 중앙대홀(2층)
중앙대 홀은 전체적으로 대리석과 석고로 마감되고 이 바탕위에 고전양식 또는 르네상스식 건축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프리이즈(Frieze), 도리아식 처마장식 중 일부

인 아키투레이브(Architrave)등의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북측 계단부는 장식기둥 2개소와 아름답게 휘어 둘러진 계단 난간과 대리석 가공 및 치장 등에서 미려한 의장기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2) 총독실 및 응접실(3층)

총독실은 조선식 목 공예품으로 장식이 되었으며, 클래식한

식민지로 진출할 무렵 일본에 이미 와 있던 독일인 건축가 젤 (Richard Seel, 1854~1922)의 요구로 테라라네도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그가 남긴 근대건축물로는 일본의 요코하마, 고베 등지에서 상공 간과 호텔, 저택을 주로 설계를 하는 등 거류지 건축가로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영사관 조선 주차군 사령부관저, 조선호텔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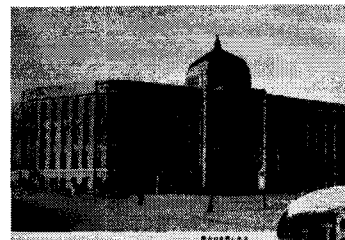
6)이 양식은 그리스, 로마의 신전을 원형으로 동서양으로 이동하면서 절충, 변화된 것을 말하며, 평면과 입면 구성을 미적원리로 하여, 완벽한 비례로 대칭시켜 조화를 이루었다.



<그림 4> 총독실 내부

조각장식들을 제작하여 부착하였는데, 가구역시 그 정교함과 세밀함을 볼 수 있다. 목재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나무를 사용하였으며, 호도나무 일색이나 노송 나무를 사용하였고 적색 목은 대만산 '카탄'이라는 나무를 사용하였다. 「신영지(新營誌)」에는 '총독실 및 응접실의 벽은 호도우목(胡桃羽目) 바르고, 천장 소벽은 이태리 용단을 붙였으며 걸레받이 등은 대리석을 붙이고, 바닥의 중앙일부는 콜크하지에 용단(velvet)을 깔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커튼은 드레퍼리 커튼으로 코니스를 강조하고 있다. 조명은 샵드리를 사용하였다

3.2. 경성부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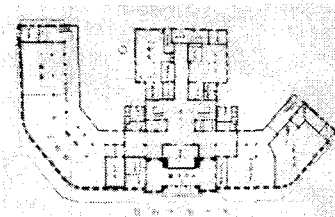


<그림 5> 경성부청 전면

경성부청은 1914년 10월에 발포된 부제령에 기초하여 제정된 경서부를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1910년 10월에 공포 시행된 조선총독부 칙령 제357조의 지방관제에 의해 종래의 한성부가 경성부로 고쳐져 경기도 소속이 되었다. 또한, 신청사는 일본의 의사당을 모방한 절충주의의 형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중앙탑의 돔이나 창문구조 등에서 이러한 형식을 볼 수 있다.

청사의 규모는 4층 높이의 건물로 정면 중앙부 탑은 6층이나 후면 회의실은 3층, 좌우 사무실 앞 복도의 일부는 2층으로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를 지형에 따라 설계하였다.

(1) 공간 구성



<그림 6> 1층 평면도

경성부청은 '산(山)'자형으로서 타 지역보다는 지반이 약간 높은 편에 속한다. 지하 1층, 지상3층의 근대식 건물로 총 건평은 2,502평이며 벽체는 벽돌로 처리하였으나 외면 벽은 화강암과 인조석을 이용한 석조 형태를 이루었다.

건평은 668평 4합(合) 2작(勺)이며 실수는 모두 97실이다.7)

7)서울 600년사 제 6편, 일제침략하의 서울, 서울특별시 편찬 위원회, 1990

평면 전체 형태는 약간의 변형된 산자형태로 조선 총독부와 같이 완벽한 좌우 대칭은 아니지만 도로를 따라 휘어진 입면 안에서 중심성과 대칭성을 드러내기 위해 의장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모더니즘 건축의 자유스러움과 비대칭의 평면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⁸⁾ 내부 공간에서는 부분적으로 칸막이벽이 사라져 개방적인 내부공간이 나타난다는 점이 다른 건축물에 견주어 특이한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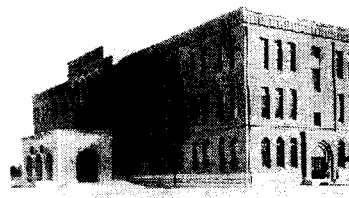
(2) 실내 디자인



<그림 7> 공간

벽체는 대개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했으나 주간은 벽돌을 쌓아 막벽 형식으로 처리하였다. 내부의 벽은 전체적으로 페인트와 회칠을 하여 실내의 조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처리 하였고, 바닥은 현관의 경우 수마 화강암을 길이로 자른 것을 사용하고, 1층 계단의 홀, 공중식당, 동서북 현관, 1·2층 복도는 대리석을 사용했다. 화장실, 수세실, 욕실 등은 타일을 쓰고 2·3·4층 계단의 홀에는 모자이크 타일을 붙였다. 일반사무실 바닥은 리놀륨판을 사용했으나 숙직실 소사실 등에는 다다미를 깔았다. 그 외 특수한 용도에 쓰이는 실에는 모르타르를 칠하여 마무리 하였다. 담과 회의실은 콘크리트위에 동판을 부착시켰으며 발코니는 6층 지붕위에 타일을 붙임으로써 자연스러운 배치를 하였다. 각 방의 배치 및 구조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대현관의 홀과 계단부분에는 대리석을 사용하고 출입문은 와니스를 칠했다. 정면의 양쪽 기둥과 천정에는 산테리아식 전등을 부착함으로써 우아한 멋을 풍길 수 있게 처리 하였다.

3.3. 경성 제3재판소



<그림 8> 경성 재판소

현재시립미술관 터에는 1895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재판소인 평리원이 있었다. 그 후 1926년 6월 타다구미의 설계로 정동 옛 평리원의 터에 일제치하에서 우국지사들을 대량 체포, 구금하기 위한 이른바 '경성 재판소'를 세우기로 하고 1927년 착공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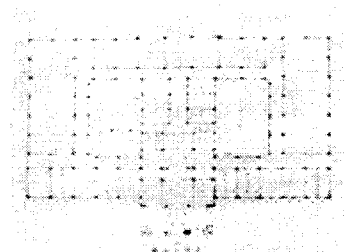
(1) 공간 구성

1920년대 후반이 되면서 대규모 관공서에서 모더니즘 건축의 영향이 보이기 시작 하는데 경성 3재판소가 대표적 사례이다.

벽체는 대개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했으나 주간은 벽돌을 쌓아 막벽 형식으로 처리하였다. 내부의 벽은 전체적으로 페인트와 회칠을 하여 실내의 조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처리 하였고, 바

다닥은 현관의 경우 수마 화강암을 길이로 자른 것을 사용하고, 1층 계단의 홀, 공중식당, 동서북 현관, 1·2층 복도는 대리석을 사용했다. 화장실, 수세실, 욕실 등은 타일을 쓰고 2·3·4층 계단의 홀에는 모자이크 타일을 붙였다. 일반사무실 바닥은 리놀륨판을 사용했으나 숙직실 소사실 등에는 다다미를 깔았다. 그 외 특수한 용도에 쓰이는 실에는 모르타르를 칠하여 마무리 하였다. 담과 회의실은 콘크리트위에 동판을 부착시켰으며 발코니는 6층 지붕위에 타일을 붙임으로써 자연스러운 배치를 하였다. 각 방의 배치 및 구조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대현관의 홀과 계단부분에는 대리석을 사용하고 출입문은 와니스를 칠했다. 정면의 양쪽 기둥과 천정에는 산테리아식 전등을 부착함으로써 우아한 멋을 풍길 수 있게 처리 하였다.

8)김훈, 1920~30년대 한국의 모더니즘 건축의 요소별 수용과 통합방식에 관한연구, 서울대 석론, 2005, p.47



<그림 9> 평면도

공간을 병렬적으로 연속시켜 내부공간을 구성하고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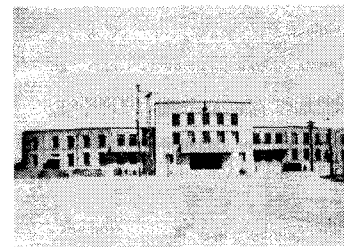
(2) 실내디자인



<그림 10> 대광관의 계단

경성 제 3재판소는 모더니즘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직전에 건축된 마지막 고전주의 양식 건축물이다.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에 실려 있는 실내 사진을 보면 대형 출입구가 중앙에 위치하고 층고를 높인 중앙 부분에 아치와 석재 장식을 붙여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수직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벽면의 장식이나 요철은 없다. 마감은 철근콘크리트로 벽체에 회반죽으로 마감하였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마감되어져 있다. 가구는 전체적으로 장식이 거의 배제된 모던한 느낌의 진한 목재로 된 가구를 사용하였고, 천장에 달린 조명은 심플한 산드레아 조명을 사용하였다. 커튼은 드레퍼리 커튼으로 코니스를 강조하고 있다. 경성부청과 조선총독부와 비교 해 보았을 때 다소 모던한 느낌의 고전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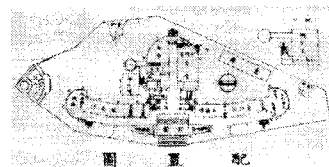
3.4. 부산부청



<그림 11> 부산부청 정면

일제강점 당시 부산 이사청 청사를 사용하였는데 그 건물은 1904년 일본영사관 건물로 건축된 것이었다. 그 위치는 오늘날 중구 동광동 용두산 남쪽 중턱에 있었다. 그 후 1929년 부 청사 이전 계획이 구체화되어 예산에 올랐으나 부재정이 어려워 시행되지 못하다가 1933~1934년의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건립하게 되었다.

(1)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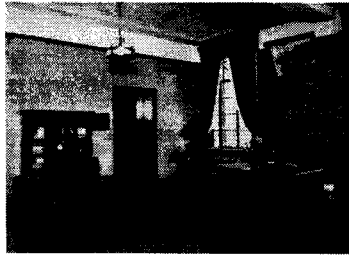
<그림 12> 1층 평면

건물의 양식은 서구의 전형적인 공공건물 양식으로 특별한 특징은 없었다. 대지 모양에 따라 좌우측 날개 부분이 뒤편으로 구

9)앞의 책, p.49

부러져 있고 좌우측 끝부분은 곡면으로 처리 되어 있다. 좌우측 끝부분의 곡면 처리는 일반적인 건축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건축물만의 특징적인 부분이다.

(2) 실내 디자인



<그림 13> 부윤실

전체적으로 근대주의적인 표현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장식적인 면에서 볼 때 다소 양식주의 장식들이 보이고 있다. 1층 로비에는 철골을 사용하지 않았고 중요한 기둥은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다. 벽은 기본적으로 회벽칠에 소벽을 만들어 마감을 두 가지로 표현하였다.

부윤실의 바닥은 카펫으로 마감하였고, 가구는 장식이 거의 배제된 어두운색의 가구들을 선택하였다. 천정은 구조물들이 보이고 있으며 격자모양의 장식이 있고 드레퍼리 커튼으로 인해 우아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전등도 천정 중심에 심플한 형태의 산드레아 등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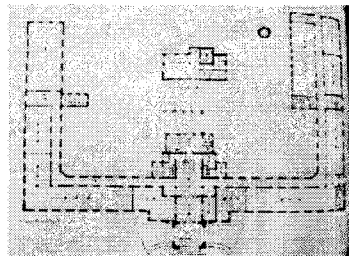
3.5. 충남도청



<그림 14> 충남도청

에 독특한 입체 문양이 있어 눈길을 끈다.

(1) 공간 구성



<그림 15> 1층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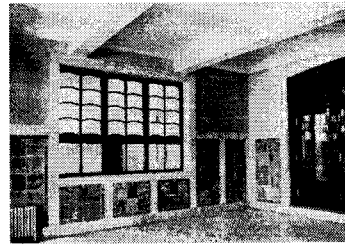
충남도청 청사는 1931년 6월 조선총독부 영선계에서 설계해 다음 해인 5월에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스킨키 캔지로가 시공한 충남도청 청사는 당시 유행한 스크래치 타일로 마감한 외관

전체적으로 근대주의적인 표현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장식적인 면에서 볼 때 다소 양식주의 장식들이 보이고 있다. 1층 로비에는 철골을 사용하지 않았고 중요한 기둥은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다.

충남도청은 건평 1,451.39평으로 지하와 지상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면은 경성재판소와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으나 평면의 H자형태가 아닌 U자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고, 내부의 각 실들은 편 복도를 따라 배치되어 있어 제국주의 양식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반면 부분적으로 칸막이벽이 사라져 공간의 개방적인 내부 공간으로 다소 모더니즘적인 표현도 보이고 있다.

(2) 실내 디자인

충남도청 역시 경성 3재판소의 영향을 받아 건립 되었으며 유사한 형태의 모더니즘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림 16> 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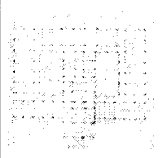










외부의 정면과 좌·우면은 라이트의 도쿄 제국호텔에 사용한 갈색의 스크래치 타일을 사용하였고, 장식은 화강석으로 하였다. 내부에는 천장과 바닥에 6종의 무늬가 12개소나 장식되거나 모자이크되어 있는데, 모두 기하학적인 틀 속에서 다소 변형을 가하거나 겹치어 장식적인 효과를 냈다.

4. 근대 공공청사 실내공간에 나타나는 표현성

근대관청 건물의 각 공간별 공간구성과 실내디자인의 표현 특성을 정리하면 <표 2>과 같다.

<표 2> 공간별 실내디자인 특성

구분	실내 공간 표현특성	
 조선총독부 朝鮮總督部 1926. - 1995	 평면도	공간형태 표현 일자형의 평면 형태로 완벽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2개의 중정을 끼고 편 복도를 두고 각 실 구성. 조선식, 르네상스 양식을 주로 사용하여 클래식한 느낌으로 표현.
 중앙대홀	 총독실	요소 디자인 실내 벽, 천정의 재료는 석고로 마감한 후 장식을 하고, 바닥은 고급스러움을 연출하기 위해 주로 대리석으로 모자이크 모양으로 마감하고 총독실 등에는 카펫과 산드레아 조명을 사용하여 화려함 표현.
표현특성 웅장하고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 공간별로 장식을 많이 사용하였고, 화려한 장식의 가구의 사용 등으로 인한 제국주의 고전주의 양식을 나타냄.	 경성부청 京城部廳 1926 - 현재	 평면도
 공간	 부윤 응접실	공간형태 표현 변형된 H자형의 평면 형태로 도로를 따라 휘어져 완벽한 좌우대칭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중심성과 대칭성을 드러내기 위해 의장 요소를 적극 사용.
요소 디자인 실내 벽은 페인트와 회칠을 하여 조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처리. 바닥은 화강암을 사용하였고 속직실은 다다미를 사용. 드레퍼리 커튼을 달고 산드레아 조명 및 장식 있는 가구 사용.	표현특성 조선총독부에 비해 장식이 배제되었으나 공간별로 장식이 많은 요소와 가구를 사용하여 고전주의 양식을 선택.	

 경성 3재판소 京城 三裁判所 1927 - 현재	 평면도	공간형태 표현 조선총독부와 같은 형태인 일자형으로 중정을 두고 있음. 편 복도를 따라 단위 공간을 병렬적으로 연속시켜 내부공간을 구성한 양식주의 건축물의 일반적인 특징.
	 고등법원 대법정	요소 디자인 석재장식을 사용하여 중심성을 강조. 수직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벽면의 장식이나 요철은 없음. 벽은 회반죽으로 마감하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마감.
	 대회의실	표현특성 평면형태 및 입면의 형태는 완벽 대칭 및 반복사용을 하고 있지만 모던한 가구를 사용하고 장식을 거의 배제하는 등의 절충주의 양식.
출처 : 朝鮮と建築		
 부산부청 釜山部廳 1936 - 1998	 평면도	공간형태 표현 산자형의 평면을 갖고 있으나 대지의 모양에 의해 좌우측 날개부분이 뒤편으로 구부러져 있고 끝부분은 곡면으로 처리. 현관과 뒤편 회의장 역시 곡면으로 처리해 일관된 설계원칙 적용.
	 회의실	요소 디자인 내부벽면에 소벽을 만들어 마감을 달리하여 마감. 우아한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카펫을 깔고 드레퍼리 커튼과 산드레아 조명을 사용.
	 부운실	표현특성 평면의 형태에서는 완벽 대칭을 이루고 있으나 각 공간별로는 장식이 배제되어 있으며 모던한 가구를 사용하여 절충주의 양식을 표현.
출처 : 朝鮮と建築		
 충남도청 忠南都廳 1931 - 현재	 평면도	공간형태 표현 중앙대홀과 일직선상에 위치한 후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장식이 배제되고, 모던한 느낌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관	요소 디자인 벽과 천장은 석고로 마감 후 장식. 출입문 쪽의 모자이크가 장식을 제외하고는 간결하게 표현. 목재소재의 모던한 느낌의 가구 사용. 조명 역시 모던한 조명기구를 사용.
	 대회의실	표현특성 특성공간에 장식을 사용하였지만, 모던한 가구를 사용하여 절충적 양식을 선택.
출처 : 朝鮮と建築		

5. 결론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에 건립된 공공 청사의 태동과 변천과정을 시대적 배경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관청에 나타난 실내 공간 구성을 파악하여 실내 공간 표현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근대공공청사의 태동은 1910년 한일합방이 되면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식민통치하기 위해 관청 건물들이 필요로 하게 되어 1926년 완공된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하여 경성부청, 경성재판소가 건립되게 되고 각 지방 도청, 부청 및 경찰서 등이 생겨나게 된다. 즉 우리나라의 관청은 일제 식민지 통치 지배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관청의 중심인 조선총독부와 경성부청은 철저하게 제국주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평면의 완벽한 대칭형을 이루고 있으며, 편 복도를 두고 그 옆으로 각 실들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실내공간에서도 바닥의 마감은 대리석으로 마감하고 벽은 석고마감을 한 후 장식으로 마무리 하였다. 또한, 가구와 요소디자인에 있어서도 장식을 많이 사용하여, 설계당시 유행을 하던 제국주의 경향의 고전주의 양식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 경성부청 건립 직후에 지어진 경성 제3 재판소와 비교해보면 이 역시 좌·우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일자형의 평면을 갖고 있고, 전면의 수직창의 반복등인 요소가 제국주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실내에 사용된 소벽이나 공간에 사용된 절제된 장식의 요소들을 보면 국제주의 경향의 모더니즘을 받아 들여 절충주의 양식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부산부청과 충남도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193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국제주의 경향을 띤 근대주의 양식의 건물들이 등장하게 된다.

근대 관청 건축물들은 동시대에 서구에서 나타나는 경향의 양식들을 잘 받아들이고 있었다. 초기에 관청은 당시 유행하던 제국주의 양식을 선택하여 권력과 웅장함을 강조하기 위해 과다한 장식이 사용되었다. 그러다 모더니즘이 유입이 되면서 평면 또는 디자인 요소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적용되게 되다 3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국제주의 경향의 모더니즘 양식의 성격의 건축물들이 건립이 된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재의 올바른 실내 공간의 미학적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근대 실내 공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근·현대 실내 공간 사이의 사회성과 역사성이 부여되어 한국 실내디자인사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정동, 김정동 교수의 근대건축기행, 푸른역사, 1999
2. 김정동, 남아있는 역사, 사라지는 건축물, 대원사, 2000
3. 김정동, 일본을 걷는다. 한양출판, 1997
4. 김영삼, 서울시사편찬위원회, this is seoul, 1957
5. 김훈, 1920~30년대 한국의 모더니즘 건축의 요소별 수용과 통합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2005
6. 서울 600년사 제6편, 일제침략하의 서울, 서울특별시 편찬 위원회, 1990
7. 신영훈, 우리 건축 100년, 현암사, 2001
8. 허영섭, 조선총독부 그 청사 건립의 이야기, 한울, 1996
9. 문화체육부, 구조선총독부 건물 실측 및 철거보고서 上·下, 1997
10. 박현우, 지방자치시대의 공공청사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론, 2006
11. 박홍, 한국현대건축과 실내디자인의 상관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 1992
12. 송석기, 한국근대건축에서 나타난 모더니즘 건축으로의 양식변화, 연세대 박사, 1999
13. 京城府史 제2권, 1934
14. 朝鮮と建築, 조선총독부신청사호 제5집 제5호
15. http : //cafe88.daum.net/c21/bbs
16. Nikolaus Pevsner, The Sources of Modern Architecture and Design, N.Y, Oxford Univ. Press, 1979